



스포츠 포커스

■ 광주여대 양궁부



# 하루 700발씩 맹훈련... '금과녁' 커 보인다



오는 7월 세계대학양궁선수권에 출전하는 기보배 선수가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하루 600~700발의 활을 쏜다?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렸을 적 한 번쯤 만져 봤던 장난감 활이 아닌 40파운드가 넘는 활 시위를 당겨 600~700발의 화살을 쏜다는 것은 선수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루 600~700발의 화살을 쏘며 여자 양궁 전국 정상에 오르는 이들이 있다. 주인공은 '전국 최강 광주여대 양궁부'.

지난 2000년 3월에 창단, 이제 8년째 접어드는 광주여대 양궁부 앞에 '전국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하루 700발의 맏기 힘든 연습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 700발의 활을 쏘며 성실하게 연습에 매달린 광주여대 양궁부는 이렇게 8년만에 전국 정상에 우뚝 서는 기적을 이뤄냈다. 처음 창단할 때만 해도 전국에서 소위 1진급 선수들을 제외한 2진급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다. 아직 신생팀으로 전국 여자 양궁부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생 광주여대 양궁부는 김성은(35) 감독과 1기 이준영, 신경진, 최미연선수들이 하루 12시간의 지옥훈련을 견디면서 창단 6개월 만인 2000년 9월 제17회 회장기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단체전에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양궁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곧바로 10월에 열린 제81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단체종합 1위, 70m 1위, 이준영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며 신생 광주여대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김 감독은 "당시 하루 12시간 훈련했는데 고교시절 빛을 보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학에 와서 한 마디 불평 없이 오기를 갖고 운동한 결과였다"며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어져 광주여대 만의 성실한 훈련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여대 양궁부는 소위 엘리트 선수들이 입단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아닌 2진급 선수들이 성실한 연습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인간승리의 장이었다.

하지만 이젠 전국 여자 양궁부가 있는 11개 대학중 가장 진화하고 싶은 학교가 됐다. 오장원 총장의 아낌없는 지원과 김성은 감독의 헌신적인 지도, '더 이상 2위는 싫다'는 선수들의 오기어린 훈련이 어우러진 결과다.

## 기보배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 구성

## 체전 금 목표 1일 10시간씩 강훈련

학교의 지원과 지옥사자를 연상케 할 정도의 혹독한 훈련을 시킨 김 감독의 헌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옥훈련을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준 선수들의 오기와 노력 덕분이다. 지금도 광주여대 양궁부 선수들은 단 한명도 아프다며 훈련에 빠지겠다는 선수가 없다.

기보배(3년) 주장은 "우리팀 선수들은 선·후배간 팀웍이 좋은데다 연습에 대해서 만큼은 너 나 할 것없이 모두가 게임처럼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전념이 있다"고 말했다.

1기 최미연은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서 금메달을 획득, 연금수혜자가 돼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광주여대는 전국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희대, 한체대를 오히려 아래로 보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좋은 선

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친 덕분이다.

오장원 총장은 광주여대 양궁부를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양궁장을 선물했다. 8개 사로가 있고, 25명이 동시발사를 할 수 있으며 야간 운동을 위한 서치 14개가 설치돼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

광주여대 양궁부는 오전 6시 30분기상, 9시부터 오전연습, 오후 2시부터 오후 훈련, 저녁 7시30분부터 야간훈련등 모두 10시간의 훈련을 한다.

여타의 다른 여자팀 보다 2~3시간 정도 훈련 양이 많다. 그렇다고 누구하나 불평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이 고교때 빛을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국 최정상으로 올려 놓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장 기보배(3년)는 안양 성문고등학교 출신으로 2004~2005년 주니어 국가대표를 지냈으나 고교때 전혀 빛을 보지 못했다. 아쉬움을 안고 광주여대에 입학, 이제는 전국 최정상에 서 있다. 오는 7월 세계대학양궁선수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조혜영(3년)도 전남체육고등학교 출신으로 2002~2003년 국가대표 후보, 2004~2005년 주니어 대표를 했으나 역시 고교때 슬럼프를 겪다 대학에 와서 꽃을 피우고 있다.

올 해 입학한 조소현(1년)은 광주체육고 출신으로 2005~2007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단체 1위를 한 실력파로 늘 광주여대의 전력을 배가 시켰다.

이들을 조련하는 김 감독은 농성초-무등중-광주체육고-동신대를 거쳐 2000년~2002년까지 양궁국가대표 후보선수 지도를 하면서 광주여대학교 양궁감독으로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다. 오는 7월 제9회 세계대학양궁선수권대회 여자부 감독을 맡아 총 지휘를 하게 된다.

'출발은 미비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고교때 빛을 보지 못한 선수들이 광주여대에 모여 성공신화를 향해 한 발 한 발 당긴 활시위가 골든 과녁을 명중시키고 있다.



왼쪽부터 황부용, 조소현, 정지수, 조혜영, 신은정, 기보배선수, 김성은 감독.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환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b>개업·성업 안내</b>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b>구구통담</b> 동구 학동 삼익세라미지전문 맞은편 웰빙아채치킨,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빈반치킨, 매운양념치킨, 생맥주추급 ☎(062)233-9992	<b>김성욱한의원</b> 남구 서동 KBC방송국 건너 대성교회 4거리 비염, 성장클리닉, 교통사고, 추나요법, 화병 원장 김성욱 ☎(062)675-7510	<b>우소우소청정고기전문점</b> 북구 매곡동 두레건강랜드 옆 매운캠핑식, 우거지곰탕, 제주소삼포크 지정점 대표 김정관 ☎(062)575-9592	<b>갈비어천가</b> 북구 오치동 고흥취폐맞은편 갈비 삼겹살 4,300 동래비빔 단체손님환영 대표 조용철 ☎(062)268-9282	<b>김기네첨단산원점</b> 광산구 월계동 부영@ 114동 건너 즉석김밥전문점 도시락 단체주문, 포장환영 ☎(062)974-0029	
<b>진품정육식당</b> 동부 불로동 삼아병원 2층 2000㎡ 맞은편 도축장에서 직영하는 집 대표 박홍열 ☎(062)224-0019	<b>치평주유소</b> 서구 차평동 상무 소각장 앞 S-Oil 신세계석유 대표 정병훈 ☎(062)381-5173	<b>엄마손김밥.만두</b> 동구 학동 유정천사우나점 맞은편 각종김밥, 만두, 떡국, 비빔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육개장, 칼국수, 콩물국수 ☎(062)228-8621	<b>하안나라운동화세탁</b> 북구 우산동 무등초교 바로 옆 수거 배달 전문업체(2컬레이어상) ☎(062)269-4450	<b>국제광택전문</b> 서구 풍암동 한방병원에서 신암교회 가는길 광택, 코팅, 부분도색, 스티프세차 ☎(062)655-9690	<b>맛을찾는사람들</b> 광산구 월곡동 그린한방병원 옆 보양탕, 추어탕, 오징어불고기 전문 대표 안미영 ☎(062)956-8020	<b>한솔영양돌솥밥</b> 광산구 월계동 무등교회 옆 영양돌솥밥 전문 대표 강성천 ☎(062)973-7607
<b>떡삼시대</b> 동부 불로동 광주세무서 뒤 매기박스 옆 지글지글삼겹살, 찜닭, 떡삼 대표 이덕균 ☎(062)232-3337	<b>웰빙시대</b> 동구 학동 정도프리카 맞은편 생삼겹, 목살, 가브리살, 향정실, 갈비찜, 생대탕 일렁, 알밥전문 단체예약손님환영 ☎(062)222-4858	<b>웨딩세라비</b> 남구 구동 KBC 방송국 건너편 결혼식부터 신혼여행까지 토달 대표 박권주 ☎(062)672-7276	<b>동부한식뷔페</b> 북구 중흥동 동부시장 동부마트 앞 뷔페 2500원 학생식권 2200원 ☎(062)261-4043	<b>종종종합인테리어</b> 북구 두암동 문화초등학교 후 맞은편 샷수, 조립식주먹, 축사, 철골, 각종 인테리어 대표 임종배 ☎(001)9175-2114	<b>화산회관</b> 광산구 월계동 신협 옆 매운갈비찜, 뽕양념삼겹살 전문 대표 김두하 ☎(062)971-0121	<b>풍천장어전복</b> 광산구 월계동 부영사우나 건너편 장어·전복전문 단체손님환영 대표 한동석 ☎(062)974-2822
<b>손객</b> 동구 대의동 구동구청 뒷길 보리밥, 삼겹살 전문점 대표 박선순 ☎(062)228-4959	<b>광주여성인력협회</b> 동구 학동 구남광주역 뒤 건너편 4거리 식당, 파출부, 간병일, 아기보육, 의료기사업, 전 단심부름, 일하실분 24시간 상담환영 ☎(062)232-5165-6	<b>대관령감자탕</b> 남구 서동 KBC 방송국 사거리 오전8시부터 새벽2시까지 영업 대표 성욱희 ☎(062)676-4722	<b>미래서비스교육원</b> 북구 유동 송광빌딩 9층 미래서비스 교육원 상담을 환영합니다 홈페이지 : www.mirecs.co.kr ☎(062)524-3300	<b>고향부페</b> 북구 오치동 미래이동병원 옆 100m 연회장, 화간, 돌 각종 모임 출장뷔페 전문 대표 김용술 ☎(062)263-1500	<b>여수아나고</b> 광산구 월계동 송덕고 학교 교회 뒤 먹자골목 분장어구이 전문 자연산 100% 대표 김영철 ☎(062)973-2510	<b>기아자동차호남대리점</b> 광산구 신기동 신가병원 맞은편 신입·경력사원수시모집 차량관련 모든 서비스를 해결드립니다! ☎(062)954-1800-2